

PC-I-2. FDA와 n-PTFE를 이용한 하악 전치부 치조제 증대술

안장혁*, 허 익, 권영혁, 박준봉, 정중혁, 신승일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주과학교실

연구배경

치조제의 결손은 심한 치주질환이나 발치 시 손상, 외상, 치주 농양, 치아파절 등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전치부에서 치조제의 결손이 발생 시 보철치료 전에 수정이 필요하다. 치조제 결손은 Seibert의 분류에 따라 ClassI(수평적 결손), ClassII(수직적 결손), ClassIII(복합적 결손)으로 나뉘어 진다. 이러한 치조제 결손의 연조직 처치로 roll technique, pouch technique, interpositional graft, onlay graft, combined onlay-interpositional graft 등이 있고, 경조직 처치로 골이식 및 골유도재생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번 증례에서는 Seibert classIII결손부에서 경조직 처치법으로 FDA와 n-PTFE를 사용하여 치조제 증대술을 시행하였다.

연구재료 및 방법

20세의 남성환자로 교통사고로 수상하여 하악 전치부가 #42~#33까지 소실되었고, 약간의 TMD증상과 치조제 결손으로 Seibert ClassIII 보였다. 순소대가 높게 위치하고, 구강전정이 낮아 먼저 유리치은 이식술을 시행한 후 2개월 뒤 FDA와 n-PTFE를 이용하여 치조제 증대술을 시행하였다. 차폐막이 노출된 지 2개월 후에 차폐막 제거와 동시에 노출된 부위를 결합조직으로 이식하였다.

연구결과

술 전에 비하여 수평적으로 4mm, 수직적으로 4mm의 치조제 증대와 각화치은이 증가하였다. 추후 연조직 이식시 더 심미적인 보철물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